

◆ 북미

- 2007년 캐나다 손해보험산업 순이익 감소
- 안전벨트 미착용시 에어백으로 인한 경추골절 가능성 증가
- 네바다주,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2006년 290명 사망

◆ 유럽

- SCOR, 2007 순수익 62% 증가
- Allianz, Dresdner Bank 사업영역 분리
- Lloyd's, '사이버 리스크' 강조

◆ 일본

- 미국 푸르덴셜, 일본생보사 지속적으로 인수할 방침
- 손보험회장, 서브 프라임 관련 손실은 2007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

◆ 중국

- 중인보험(中銀保險), 30억 달러 보험계약 인수
- 상하이(上海), 부동산 담보대출보험 해약사태 현실로
- 평안생명(平安人壽), 시장점유율 하락세 지속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【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2007년 캐나다 손해보험산업 순이익 감소

- 캐나다 손해보험산업 순이익은 41억 6천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던 2006년에 비해 3.6% 줄어든 40억 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.
- MSA Research가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순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손해율과 합산비율도 증가했다고 밝힘.
- 2007년 순손해율(net loss ratio)은 65.1%로 2006년에 비해 1.58% 증가하였으며 합산비율은 94.6%로 2006의 92.4%를 넘어섰음.
- 온타리오주 자동차보험산업의 원수손해율(direct loss ratio)은 2006년 71.6%에서 6%가량 증가한 78.5%를 기록하였으며 앨버타주의 경우는 2006년에 비해 1.4% 감소한 62.9%를 기록함.
- MSA의 보고서는 캐나다의 129개 보험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85%이상의 대형사들이 포함됨.
- 주요 결과들은 아래와 같음.
- 원수보험료(direct premium) 성장률은 3.2%, 순보험료(net premium) 성장률은 3.4%를 기록하였고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임.
- 순보험금(net claims)은 2006년에 비해 6% 증가하였으며 보험영업수익은 보험영업비용의 소폭 상승과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26%이상 감소하였고 투자수익률은 8.1%를 기록하였음.
- 전년도 순이익을 공정가치회계(fair value accounting)를 적용하여 조정할 경우 순이익은 4.8% 감소하였으며 63개 사가 전년대비 순이익 감소를 나타냈고 65개사가 순이익 증가를 기록함.

(Canadian Underwriter, 3/19)

□ 안전벨트 미착용시 에어백으로 인한 경추골절 가능성 증가

- 자동차 사고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에어백만으로 보호받을 경우 경추골절과 척추 손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.
- 피츠버그 대학의 William F. Donaldson은 보고서를 통해 “교통사고 시 에어백으로 인한 경추골절과 척추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.”고 밝힘.
- 연구는 1990년~2002년 사이 8,500명의 운전자와 4,200명의 승객 등 12,700명의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음.
- 연구 결과 운전석에서 에어백만을 사용한 경우 54%의 운전자에게서 경추골절이 나타났으며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42%의 운전자에게서 경추골절이 나타났음.
- 기타 요인을 통제한 상대적 위험도는 에어백만 사용한 경우가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둘 다 사용한 경우보다 70%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둘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32%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조수석에서는 에어백만 사용할 경우 안전벨트도 착용한 경우보다 경추손상과 척추 손상 위험이 7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여성의 경우 손상위험이 절반정도 인 것으로 나타남.
- 에어백은 안전벨트만 착용한 경우보다 정면충돌시의 사망위험을 20%가량 줄여주지만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통사고 시 중상이 나타날 수 있음.
- Donaldson은 안전벨트 착용 유무는 흉부, 복부, 두부 등에 추가적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며 운전대와 흉부의 간격을 10인치 이상 확보하는 것이 상해 정도를 줄이고 에어백으로 인한 경추 및 척추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함.

(Insurance Journal, 3/17)

□ 네바다주,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2006년 290명 사망

- Families USA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 미가입자들의 경우 응급실을 외에는 일상적인 진료를 받기 힘들며 검진이나 예방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함.
- Families USA의 이사인 Ron Pollack은 미국의 보험 미가입자들은 가입자들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며 일찍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함.
- 그들의 보고서 “Dying for Coverage in Nevada”는 2006년 네바다 주의 25~64세 사이 인구 중 290명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2000년~2006년 사이에는 1,600명이 같은 이유로 사망했다고 추정함.
- Pollack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그들이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적절한 의료행위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의사를 만날 수도 없었다고 지적함.
- 그는 이번 보고서가 부적절한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많은 네바다 주민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힘.
- 한편 2002년에 행해진 전국 단위의 연구에서는 2000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인구는 18,000명이었으며 최근의 결과에 따르면 2006년 2,200명이 같은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.
- 네바다 주의 진보주의 단체를 이끌고 있는 Bob Fulkerson은 이러한 문제의 해답이 연방이나 주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함.
- 하나는 공적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 등을 자신의 보험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.
- 그는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.

(KOLO News, 3/19)

【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SCOR, 2007 순이익 62% 증가

- 프랑스 재보험회사 SCOR 그룹은 2007년 순이익이 전년대비 62% 증가한 633백만 달러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.
 - ROE(자기자본수익률)는 14.1%, EPS(주당순이익)는 4.337달러를 기록하여 회사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.
-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07년 1월 Converium(구 Zurich Re)을 합병한 데서 기인하며, 보험료 성장률은 62%로 7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 - 원수보험료 규모는 91억 달러로 2006 대비 100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.
 - 사업영역별로 보면, 손해보험에서 양호한 합산비율 97.3%를 기록하였고, 생명보험은 운영수익(operating margin) 7.6%를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강한 이익을 거두었음.
- 자산운용 측면에서는, 신중한 자산관리 전략으로 297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투자포트폴리오에서 4.4%의 안정적 수익률을 시현하였음.
- 또한, 효율적인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운영으로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직접적인 배상의 리스크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(Insurancejournal, 3/20)

□ Allianz, Dresdner Bank 사업영역 분리

- Allianz의 자회사인 Dresdner Bank가 투자은행인 Dresdner Kleinwort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별개의 사업영역으로 분리됨.
 - Dresdner의 관계자는 은행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별도의 법인으로써 투자은행쪽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.
 - 한편, Allianz는 2001년 Dresdner Bank를 인수한 이후로 사업실적의 변동성이 커져 투자은행업 포기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음.
- Dresdner는 지난 금요일 Dresdner Kleinwort 투자은행을 소매은행 영업에서 분리시키는 내용의 2개의 별도 법인 탄생을 승인하였음.
 - 양 사업 부문의 지주회사가 되는 Dresdner측은 사업영역 분리가 은행업 무 강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.
- 은행부문의 사업분리에 따라 Allianz는 소매은행업에서의 선택영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, Allianz는 지난달 독일 소매은행인 Deutsche Postbank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암시하였음.
 - 일부 투자분석가들은 Postbank가 Dresdner보다 방카슈랑스 파트너로 더 나은 상대라고 주장하였으며, 동 사는 합병보다는 기존의 소매은행을 매각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.
- Allianz의 대표이사 Michael Diekmann은 지난 4분기 Dresdner Kleinwort의 투자은행업무에서의 손실에 따른 전략토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혔으며, 투자분석가 William Hawkins는 Allianz가 Dresdner Bank 절반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수많은 전략적 대안 중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.
 - Allianz 그룹은 Dresdner Bank가 4분기 실적에서 4.6억 유로의 손실을 내며 투자은행 부문에서의 성과가 악화된 바 있음.

(Financial Times, 3/14)

□ Lloyd's, '사이버 리스크' 강조

- Lloyd's는 최근 웹사이트 기고를 통해 사이버 리스크의 심각성을 경고하였음.
 - Lloyd's의 브로커사 Aon의 Technical Director인 Tom Sheffield는 “사이버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고, 정보를 도용한 범죄는 개개인의 재산을 소극적 방법으로 강탈하는 것과 같다”고 지적하였음.
 - 또한, 데이터 손실의 약 40%가 사업 파트너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므로, 회사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도록 임직원을 교육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함.
- 사이버 보안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, 고객에 대한 배상, 사건처리비용, 판매 정보의 유출에 따른 손실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데, 휴대폰 또한 이메일과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또 다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으며,
 - 교체를 앞둔 오래된 컴퓨터도 은행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킹 및 해독 등 사이버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폐기처분 전에 하드 드라이브를 확실히 지워야 한다고 강조함.
-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직접적 손실은 기술적으로 악용되는 부분이므로, 회사들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.
 -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갖추지 않은 회사들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경우 임직원이나 계약자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함.
-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까지 화재나 자연재해 등 재해와 같은 유형에 대한 보호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나,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재해 유형으로 사이버 리스크가 등장하였으며, 이는 개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림.

(Insurancejournal, 3/14)

【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미국 푸르덴셜, 일본생보사 지속적으로 인수할 방침

- 미국의 세계적인 생명보험그룹인 푸르덴셜 파이낸셜은 12일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생명보험회사의 인수를 추진할 방침을 발표함.
- 이는 전통적 생명보험 상품인 종신보험 등 사망보장 상품의 판매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중견 및 중소형 생명보험사와의 통합을 통한 MS 확대를 목표로 함.
- 동 사는 일본에서 고객과의 대면판매채널인 라이프플래너제도를 도입하여 신뢰를 얻고 있으며 또한, 2001년에 교에이(協榮)생명보험(현재 지브럴터 생명보험), 2004년에는 구 닛산생명보험을 계승한 아오바생명보험을 인수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.
- 그 결과 보유계약고는 2006년까지 18년 연속 성장을 기록하였고 사망보장 보험상품의 신규 계약고에서는 기존 대기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음.
- 일본 푸르덴셜생명보험의 마에다 회장은 “판매 대상이 폭넓은 기존의 대기업을 아니고, 특정한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와의 합병은 의미가 있다”라고 밝힘.

(FujiSankei Business I, 3/14)

□ 손보험회장, 서브 프라임 관련 손실은 2007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

-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에가시라 회장(현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 사장)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서브 프라임 론으로 인한 신용위축 문제가 손해보험 회사의 손익에 주는 영향이 2007회계연도에 거의 마무리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.
- 에가시라 회장은 서브 프라임 론 관련 손실이 손해보험사들의 2008년 3월말 결산에 주는 영향은 2007년 12월말과 거의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해 수정 전망을 내고 있는 몇몇 손해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서브 프라임 관련 예상 손실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 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음.
- 아이오이손해보험(Aioi Insurance)은 2월 22일 2008년 3월말 예상실적을 일부 수정하고 있으며 서브 프라임 론 관련 손실을 920억엔 계상함에 따라 종전의 165억엔 흑자에서 최종 40억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, 엔/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외화기준 자산운용으로 수익 감소 영향은 있겠지만 외화기준의 전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.
-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평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손해보험회사의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이 매우 낮고 가격 변동 준비금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준에서는 현금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.
- 다만, 주가하락이 장기화되어 자산운용 환경이 악화되고 엔고의 영향으로 경기 하락이나 화물보험에 정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함.

(일본 로이터통신, 3/21)

【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중인보험(中銀保險), 30억 달러 보험계약 인수

- 지난 3월 20일 중국은행은 산하기업인 중인보험유한공사(中銀保險有限公司)가 글로벌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중인항공(中銀航空)렌탈유한공사로부터 보장보험금이 30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했다고 발표함.
- 중인보험이 인수한 보험은 중인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기, 화물기 등의 기체, 부대설비는 물론 제3자 배상책임, 전쟁위험, 우발적사고 등을 모두 담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 - 중인보험은 글로벌 보험사와 컨소시엄으로 이번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2008년 계약은 물론 향후 2년 연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 - 그러나 중인보험의 보험인수가 확정되자 업계에서는 그룹 내 기업끼리 밀어주기식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빈발할 것을 우려함.
- 중인항공렌탈은 아시아에 본부를 둔 항공기 렌탈회사로, 79대의 신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비행기는 62대이며 17대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체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.
- 한편, 북경에 본사를 둔 손해보험회사인 중인보험유한공사는 상하이(上海), 저장(浙江), 장쑤(江蘇), 광둥(廣東) 등 지역에 16개 지점을 운영중이며 방카슈랑스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.

(중국증권보, 3/21)

□ 상하이(上海), 부동산 담보대출보험 해약사태 현실로

- 최근 상하이(上海) 부동산 담보대출보험 시장을 살펴보면 신규 담보대출 보험은 담보상태인데 반해 기존 담보대출 계약은 해약이 빗발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와 같은 사태는 그동안 저금리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던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자 적극적인 대출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야기된 것임.
- 통계자료에 따르면, 1/4분기가 채 지나기도 전인 현재까지 이미 해약한 부동산 담보대출 건수가 지난 해 총 해약 건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이를 놓고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극심한 비대칭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, 상하이 지역의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담보대출보험 가입자를 찾기 힘들어지자 부동산 개발업자와 협력하여 신규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임.
- 금년 들어 상하이 지역 부동산 담보대출보험 시장은 수입보험료가 해약보험금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1,257만 위안의 마이너스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상하이 15개 손해보험회사 중 9개 사가 마이너스 수입을 나타내고 있는데, 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는 부동산 담보대출보험 시장을 축소하고 잉여인력을 타 부서로 배치하는 등 고육책을 시행하고 있음.
- 부동산 담보대출보험 해약사태는 지난 해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던 베이징(北京), 난징(南京), 광저우(廣州), 샤먼(廈門) 등의 지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해약자의 상당수가 2006년 이전 주택구입자이며 이들은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거나 주택 매각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(신문진보, 3/20)

□ 핑안생명(平安人壽), 시장점유율 하락세 지속

- 핑안생명(平安人壽)의 시장점유율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3월 20일 중국 보감위가 발표한 전국보험업통계 자료에 따르면, 핑안생명이 금년 2월 말까지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총 191억 위안으로 전체 시장의 13.2%를 점유하였는데, 이는 금년 1월 말 14.2%에 비해 약 1% 포인트 하락한 수치임.
 - 핑안보험그룹이 발표한 연보(年報)에는 2007년 말 핑안생명이 16.3%의 시장점유율을 확보(2006년 17%)한 것으로 나타났음.
 - 한편, 최대 경쟁자인 중국생명은 점유비가 축소되는 핑안생명과 달리 2007년 말, 금년 1월, 2월 각각 39.7%, 40.2%, 41.4%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.
- 지난 해 핑안생명은 개인보험과 분할납 보험상품 판매에 역점을 두었으며, 그에 따라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006년에 비해 약간 상승했고 개인보험의 분할납 비중도 41.3%나 증가하였음.
 - 그러나 일시납 보험료가 26.5% 하락함으로써 기회비용을 톡톡히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중대형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 분야에서 수백퍼센트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핑안생명은 겨우 16.5% 증가에 그쳤음.
- 한편, 핑안생명은 배당형(38.4%), 투자연동형(6.1%), 유니버설보험(27.1%) 등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추었으며,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보험료 성장을 보인 것은 배당형 보험상품으로 나타났음.

(21세기경제보도, 3/21)

【 Financial Key Indicators 】

구분		07년말	08.3.7(금)	08.3.14(금)	08.3.21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韓 국고채(3년)	5.74	5.00	5.25	5.18	-0.07
	美 10년국채	4.03	3.53	3.44	3.33*	-0.11
	英 10년국채	4.51	4.33	4.33	4.29	-0.04
	日 10년국채	1.51	1.36	1.27	1.28	+0.01
주가	韓 KOSPI	1,897.13	1,663.97	1,600.26	1,645.69	+2.84%
	韓 KOSDAQ	704.23	643.75	617.71	615.93	-0.29%
	美 DJIA	13,264.82	11,893.69	11,951.09	12,361.32*	+3.43%
	美 Nasdaq	2,652.28	2,212.49	2,212.49	2,258.11*	+2.06%
	英 FTSE	6,456.90	5,699.90	5,631.70	5,495.20*	-2.42%
	獨 DAX	8,067.32	6,513.99	6,451.90	6,319.99*	-2.04%
	佛 CAC40	5,614.08	4,618.96	4,592.15	4,533.72*	-1.27%
	日 Nikkei225	15,307.78	12,782.80	12,241.60	12,482.57	+1.97%
	中 상해종합	5,261.56	4,300.52	3,962.67	3,796.58	-4.19%
	대만 가권	8,506.28	8,531.38	8,161.39	8,524.99	+4.46%
	홍콩항셍	27,812.65	22,501.33	22,237.11	21,108.22*	-5.08%
환율	원/달러	938.20	949.30	980.50	1,013.90	+33.40
	원/100엔	833.33	924.88	974.75	1,023.31	+48.56
	엔/달러	112.58	102.64	100.59	99.08	-1.51
	달러/유로	1.4722	1.5393	1.5617	1.5454	-0.0163
	위안/달러	7.3041	7.1060	7.0904	7.0525	-0.0379

주 : *는 3/20 기준임.